

# 하나님께 돌아오라

윌리엄 맥도날드 지음 / 김병희 옮김

# THERE'S A WAY BACK TO GOD

by  
William MacDonald

Walterick Publishers  
P.O.Box 2216  
Kansas City, Kansas

## 차 례

버드에게 일어난 일.....	5
교 제.....	11
타라한 형태들.....	18
타국에서 .....	25
밀바닥에 떨어지기.....	32
“이제는 소망이 없다” .....	34
“집으로 돌아오라”.....	36
중대한 결심.....	37
나를 ‘마라’(괴로움)라 칭하라 .....	42
용서의 확신.....	46
타락의 결과들.....	54
꽃대를 향하여.....	59



## 버드에게 일어난 일

**버**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술 마시기를 좋아하며 욕을 잘하는 해군 수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은 언젠가는 종교적인 사람이 될 것ियो”라고 말했다면 그는 아마 욕을 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동료들에게 자신의 주량(酒量)과 이리 같은 정욕을 과시하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그는 어깨를 흔들거리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버드가 근무하는 항공모함에서 그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리였는데 그는 매주일마다 저장실에서 열리는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빌리와 버드는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빌리는 버드에게 무질서한 그의 삶과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야기해

## 6 하나님께 돌아오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버드의 반응이 적대적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빌리는 인내하며 끈기 있게 전도했습니다.

물론 버드는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서인지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빌리와 마주치면 자신의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무심결에 내뱉는 질문들을 한두 번씩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밤 버드는 호놀룰루에서 한잔 하고 혼자서 배로 돌아오다가 세 명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받아 실컷 두들겨 맞고 가진 것을 모두 털린 후 의식을 잃은 채로 골목에 그냥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해안 경비대가 그를 발견하여 배로 데려 갔고 그는 군함에 있는 병실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던 후에 우연히 버드는 식사 줄에서 빌리 다음에 서게 되었고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그들은 저장실로 걸어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빌리는 버드의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 다음 그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주 예수 그리

스도께 헌신하라고 도전했습니다.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 있던 버드는 저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의 거짓된 허세는 모두 사라져버렸으며 그는 몇가지 더러운 습관들을 거의 즉시 끊었습니다. 그는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경건의 시간을 날마다 갖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또 체계적인 성경 암송을 시작했으며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조롱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특히 많은 동료들이 주위에 모여 있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빈정댔습니다.

“저 붉은 마귀가 집사가 되었구먼!”

대개 버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관하여 자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자 조롱은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변화, 그의 변함없는 간증,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취하는 사교적이면서도 사랑스러운 태도 등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경심을 불

러 일으켰습니다.

해군에서 나머지 기간을 복무하는 동안 버드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갔습니다. 그는 빌리가 다른 항공 모함으로 전출되자 빌리의 뒤를 이어 성경공부 모임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버드의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 같은 배 안에 있는 서른 다섯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6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버드는 이제 군복무를 끝마치고 민간인이 되어 아리조나 주의 홈스테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여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에어컨 회사에 판매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위해 더이상 불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고 있으며 그의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주일학교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버드에게는 그리스도인 친구도 없습니다. 사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 있는한 피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2주일 전에 빌리는 휴가를 받고 텍사스에 있는 집



으로 돌아가다가 홈스테드에 잠시 들려 버드를 방문했습니다. (빌리는 버드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리가 버드의 집 앞에서 차를 멈추었을 때 버드는 집 옆에 세워둔 차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가졌던 열린 마음은 사라져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 부자유스럽고 서먹서먹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 10분쯤 지난 후에 빌리는 그 장벽을 깨드려 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버드 형제님, 형제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버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담배를 차도에 떨어뜨려 발로 밟아 꺾었습니다. 빌리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버드 형제님, 그날 밤 저장실에서 형제님 보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버드는 혹시 누가 자기를 보고 있거나 않은가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집쪽을 향해 눈길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10 하나님께 돌아오라

“물론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주님께게서 떠나 있습니다.”

자기 자동차 앞바퀴 부근에서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으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의 태도는 연민의 정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께게서 떠나 있다고요?”

도대체 버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어떻게 해서 주님께게서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될 수 있다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 교 제

**버** 드의 사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흔히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타락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다시 말해서 거듭남으로써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긴 하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백하지 않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요일 1:5).

이와 같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사람이 자기 죄를 자각하는 순간 그것을 고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하여간 무엇보다도 교제란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는다

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죄를 사람이 너그럽게 용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요일 1:6,7)?

인간의 가족 사이에서 교제란 식구들이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는 교제가 단절됩니다. 집안에는 분개심과 긴장감의 먹구름이 감돌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는 남편과 아내가 자기 잘못을 서로 자백하고 화해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가느다란 실과 같은 교제가 딱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그 죄를 자백하고 버릴 때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교제는 단절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시키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요 1:12). 이 관계는 영적인 출생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출생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도 일단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행복한 가족정신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립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생활의 압박은 매일 갖는 경건의 시간을 좀먹어 들어가고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죄에 대하여 일종의 자유분방한 태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유혹들은 더이상 무섭게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즐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을 실제로 행하려는 생각은 없고 그저 죄에 대한 생각만을 즐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기 시작하

## 11 하나님께 돌아오라

며 이윽고 우리는 그것을 만지작거리게 되고 그것을 시험삼아 한번씩 해보다가 결국 그것에 뛰어들고 마는 것입니다(약 1:14,15).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한두 번이라도 곁길로 나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롯, 삼손, 나오미, 다윗, 요나, 베드로, 데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족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3).

교제가 끊어지면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 곧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회개와 자백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만과 강박함 때문에 이것은 몇 주일,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마땅히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면 우리는 그들에게도 역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마 5:23,24). 또한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손실을 입혔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된 자백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다 되고 나면 그 즉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들을 가득 채우심으로써 그분의 사랑하시는 사역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요 16:14).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했을지라도 자기 죄에 대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형벌은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요 5:24).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받을 형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 마귀가 하

나님의 보좌 앞에서 범죄한 그리스도인을 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언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서서 자기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하나님께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 대하여 제가 2000년 전에 값을 다 치렀습니다”(요일 1:2).

그러나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하늘에서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은 이 세상에서 범하게 되는 죄와 그 죄에 대한 결과들 중의 일부입니다.

- (1) 주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
- (2) 간증을 망침
- (3) 다른 사람들에게 비참한 불행을 가져다 줌
- (4) 시간과 경비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옴
- (5) 육체적, 정신적인 손실을 입게 됨
- (6) 큰 수치와 후회를 당하게 됨
- (7) 범죄한 자신도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됨
- (8) 그리스도를 섬길 기회를 잃게 됨
- (9) 타락한 자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됨

다음 사항들은 이 땅에서 범한 죄에 대해 하늘에서 받게 될 대가들 중의 일부입니다.



(1)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잃게 됨(고전 3:15).

(2)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들을 그만큼 덜 즐기게 됨.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하나님은 돌아오는 탕자를 환영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죄와 실패를 다스릴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타락의 원인이 죄라는 것과 이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킨다는 것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타락의 여러 가지 형태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모든 타락에 있어서 그 근본 원인과 해결책은 동일하지만 이 영적인 병은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 타락한 형태들

**우**선 우리는 도덕적인 타락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결혼한지 15년이 넘은 이 사람은 교회에서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것은 그가 여자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구변이 좋았으며 그의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손은 상대방을 쓰다듬기를 잘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가 사업차 집을 멀리 떠나 있는 동안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교회 집회에 빠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가정에서도 그의 태도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예전과는 달리

냉담해지고 무관심하며 영적인 일에 반응이 별로 없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 때까지 그는 모든 것을 비밀로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탕자와 같은 형태의 타락**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라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가정해 봅시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자란 이 사람은 해병대에 입대하기 바로 전 해(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통제 받던 가정생활을 벗어나는 것은 그에게 큰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재미있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병대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리 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일에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은 “B”라는 사람의 참 모습이 아니었으며 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의식과 불만족감이 있었습니다.

“C”라는 사람은 **지적인 타락자**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였으며 두번째 이유는 인정받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는 철학을 전공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나 첫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의 신앙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질이 좁고 급하며 비판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성을 잃어버리고 의심과 억측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 운동권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인들과의 모임을 즐겨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술취하는 타락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D”라는 사람은 단순히 사교적인 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상 접대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권유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싶지 않아서 술을 거절하기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손님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 칵테일을 가져다 그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하지만 가정과 사업의 압박이 커짐에 따라 술을 마심으로써 도피구를 찾았습니다. 어느덧 그는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면 그는 몹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기 위해 또 한잔의 술을 들이킵니다.

또다른 형태의 타락자는 불신자와 결혼하여 부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믿지 않는자와 명예를 같이 하는 타락입니다. 예를 들면 “E”라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전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처녀였습니다. 이러한 그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혼자와의 교제에 있어서 그녀는 쓰라린 실패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약혼자와 3주 동안 사랑을 나누는 후에 그녀의 약혼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후에 그녀는 그것이 무의미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공통적인 사항들은 거의 없었으며 가정에서는 분쟁이 그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은 신경질적이고 반항적이었으며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저녁 시간을 자기 친구들과 함께 보내고 있으며 그녀는 집에 앉아 이것 저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후 몇년 동안은 집회에 참석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나마 포

기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사업적으로 타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사업에 너무 몰두되어 있는 탓으로 가정이나 주님을 위해 시간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으며 교회에 가끔씩 참석하는 것도 거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생의 염려가 그들의 영적인 활력을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과 물질주의의 희생자들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형태의 타락이 있습니다. 사랑에 실망했거나 크나큰 역경을 당하는 어떤 사람들은 냉랭한 육신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겉으로는 불행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축복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불행으로 받아들여 썰쭉해지고 침울해져서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서하고 잊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복수

심을 갖게 되고 자비가 없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용서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마 6:14,15). 따라서 자기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으로 인해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의 끊임없는 불화로 말미암아 잘못된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사소한 불일치로 인해 가정의 평화는 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던 외교관과 같이 예의 바른 관계는 단절되고 가정제단은 더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정하게 대화조차 나눌 수 없는 마당에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양보하거나 굴복하려하지 않습니다. 양쪽이 다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것들 외에도 잘못된 사례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음과 같은 죄로부터 생깁니다.

불순종

부도덕  
사랑의 결핍  
용서하려 하지 않는 마음  
세속성  
탐욕 등등

이상과 같은 예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것처럼 멀리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을까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예들을 보신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다윗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범했습니다(삼하 11:1~27).

(2)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술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창 9:20,21).

(3) 롯은 사업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돔 성에서 위신과 재물을 구했습니다(창 13:7~11; 19:1~28).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주님과와의 관계를 회복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조차 회복을 받을 수 있었다면 방황하는 어떠한 참 그리스도인도 회복 받을 수 있습니다.



## 타국에서

**영**적인 타락의 초기 증상 중의 하나는 성경 위에 먼지가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데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은 더이상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쯤 거른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며칠 또는 일주일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성경공부를 완전히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에 대해 구미가 당기지도 않으며 필요성도 더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 기도가 영적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도생활이 가끔씩 이어지다가 어느덧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기도가 다소 애매모호하게 보이고 알 수 없는 막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교회의 집회에 참석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 점에 있어서도 역시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는 흥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위선자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나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얼마 안되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상태를 눈치채고 그와 교제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교묘히 피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몹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 밖에서 우정과 쾌락을 찾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이라고 말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다소 거북스럽게 느껴지지만 얼마 안되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그 점에 있어서 놀라운 균형과 능숙을 계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의 기쁨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는 과거에는 주 예수님에 관하여 지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 때 그는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서 용솨음쳐 나오는 기쁨을 노래하곤 했었습니다. 그는 지

금도 가끔씩 노래를 하긴 하지만 이것이 찬송가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는 삶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에게는 잘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모든 불운이 자기에게만 닥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이라도 사태가 잘 돌아간다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 화풀이를 합니다. 한 때는 그도 상냥하고 친절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무뚝뚝하고 시무룩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죄를 짓기가 높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것처럼 그에게 몹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을 넘어서면 그 장애물은 낮아지고 그것을 넘는 일이 다시는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그는 차라리 모든 일을 다 해버리자고 결심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련의 꽤 복잡한 합리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의 요즈음 삶의 방식을 지지해 주는 듯한 성경말씀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그리

스도인들이 신앙심은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자기보다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문제는 그들이 너무 율법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는 자기 부모는 자기가 어렸을 적에 너무 엄격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그는 어떤 죄들은 사랑 가운데서 행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비참합니다. 그는 이처럼 생활하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것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훌륭한 배우로서 겉으로는 태평한 듯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서진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적인 비참함을 고백하는 일을 좀처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이중적인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감추려고 늘 노력하지만 그것이 노출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뒤를 성가시게 따라 다닙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입막는 돈”이나 뇌물을 사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혐오스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가정에서라면 심하게 나무랐을 상황들을 이제는 그냥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가련한 그리스도인 친구들조차 자기보다 훨씬 나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자기는 울 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이것을 은유하게 잘 참습니다.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거리가 될 만큼 그는 대단히 변해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친구들 중에서 몇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비난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네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만 해도 너는 점잖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처럼 방당한 난봉꾼들로부터 이와 같은 비난을 듣는 것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가슴아픈 일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영적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이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놓은 질문들을 하지만 그의 입은 꼭 봉해져 있습니다. 한때, 그는 적으나마 영적인 도움을 주려고 한두번 정도 가까스로 애를 썼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너는 여기서 무얼 하고 있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말을 안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한번쯤은 불신자조차 거의 가지 않는 장소에 갔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하기만 하지만 그것을 자기 속에 비밀로 꼭꼭 덮어둡니다.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미움으로 변했는가를 생각할 때 그는 깜짝 놀랍니다. 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 배우자를 생각할 때 그는 예전에 고백했던 사랑만큼이나 큰 증오로 자기 배우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삼하 13:15).

삶은 단조롭게 변해 가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는 어느 때보다 더욱 열심히 일을 하지만 무엇 하나 제

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돈은 손과 호주머니에서 자꾸 새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차 사고가 나서 수리 비용이 든다든지 또는 아파트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이상야릇하게 발생한다든지 해서 얘기치 않던 지출이 자꾸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역시 자꾸 올라갑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 일련의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다할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다른 증상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처한 상황들이 곧 바뀔 것이라는 희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사태가 항상 이렇게 나쁘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합니다.

어떤 “H”라는 사람이 죽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장례식을 기다리지만 그것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는 간혹 자신의 장례식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끝장내 버릴까’라는 생각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에 그칠 뿐입니다.

## 밑바닥에 떨어지기

**조** 만간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필연코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밑바닥을 찌꺼기라고 볼 수도 있고, 껌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이 밑바닥은 황량한 어느 겨울날 그가 서서 쳐다보는, 열린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조그만 관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그 사람 혼자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사고일 수도 있으며, 혹은 이것저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병원 침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의 어느 경우도 아닌, 그저 인간의 인내의 한계로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이것을 자포자기와 완전한 좌절의 때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도피구가 모두 막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갈등과 싸움은 무익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 “이제는 소망이 없다”

**바** 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과 같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젠 소망이 없다.”

“애써봐야 전혀 소용이 없겠군.”

“너는 차라리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필연적인 결과와 협력하는 거야.”

“어쨌든 사태는 결코 예전과 같아질 수 없어. 날개가 부러진 새는 다시는 높이 날지 못해.”

“너는 이제 기회를 잃어버렸어.”

“너는 이제 돌아설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그 목소리는 길고 텅빈 희망을 따라 다음과 같이 울려 퍼져 내려갑니다.

“이젠 소망이 없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되돌이킬 수 없다!”

“불가능이다!”

## “집으로 돌아오라”

**하**지만 이 어둡고 쓸쓸한 시간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희망에 넘치는 약속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과거는 용서를 받고 지워질 수 있다.”

“쌓이고 쌓인 수많은 죄들은 일순간에 깨끗해질 수 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사태는 과거와 같이 좋아질 수 있다.”

“아니, 더 좋아질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팻종이가 먹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킬 수 있다.”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전혀 없다.”

“네가 당하는 일도 그분에게는 어렵지 않다.”

“집으로 돌아오라!”

## 중대한 결심

그 다음에는 중대한 결심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갈등하는 생각들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와 실패를 인정하는 낮뜨거운 수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으로 돌아가 사태를 바로잡으려는 강렬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가 “뒤로 돌아”(방향 전환)를 생각하자마자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마귀들이 자기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는 인간의 몸이 것처럼 격렬하면서도 상반된 긴장을 견딜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원한을 품은 신랄한 음성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호 14:1,2).

그 다음에는 중대한 결심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버티고 있던 마음의 긴장이 세차게 허물어져 내리면서 상한 심령으로부터 복받쳐 오르는 호느낌과 더불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고 곧은 목을 가졌던 타락자는 구주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그의 입술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적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 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 51:1~17).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  
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눅 15:18  
하,19).

이제 큰 안도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제거된  
것입니다. 밝은 빛이 비취기 시작했으며, 새 날이 밝  
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말이 그의 마음에 떠오릅니  
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그는 마치 모든 것이 이 약속에 달려 있거나 한 것  
처럼 이 약속에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리  
고 왕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환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  
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 어다 입히고 손에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눅 15:20~24).

그는 특히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자기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相距)가 먼데도 그를 보시고 달려가 그를 껴안으시며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맞춤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옷…

손에가락지…

발에 신…

그리고 살찐 송아지…

## 나를 ‘마라’(괴로움)라 칭하라!

**그**의 영혼 속에서 종이 이미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리스도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로 돌아가는 데에는 아직도 큰 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대면하고 나서 느껴야 할 부끄러움 때문에 움찔합니다. 그는 그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냉담한 태도로 나에게 거리를 두지는 않을까?

그들은 나를 피하지는 않을까?

혹 그들은 나를 비판하지는 않을까?

그는 구약의 나오미를 기억합니다. 그녀가 모압 땅에서 얼마간 타락의 길을 걸다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가 나오미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나오미(희락이라는 뜻)라 칭하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는 뜻)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빈 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룻 1:19~21).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나야. 나를 괴로움이라 칭하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지만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영접할까 하는 것에 관한 그의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처럼 그를 놀랍게 환영합니다. 그들은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한 악수를 나누며, 어떤 사람들은 그를 껴안기도 하고, 눈물을 마구 쏟기도 합니다. 서로 비난하는 일도 없으며, 아무도, “그것 보세요.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 가족과 지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픔을 갖다 준 것에 대한 사과를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서의 말로 그의 말을 가로막고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

#### 11 하나님께 돌아오라

에 대해 감사를 표명합니다. 그는 그들이 자기를 땅바닥에 기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닥쳐보니 사랑과 자비로 자기를 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흥분된 그의 심장의 고동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으냐! 주님과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다시 나누게 된다는 것,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입맞춤을 경험한다는 것이!”

사실, 그것은 거듭나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 속으로 스며듭니다. ‘예전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었나?’ 하지만 이 의문은 학구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설혹 그가 예전에 구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지금 구원을 받았으며, 바로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안도감이 그를 압도합니다. 더이상 주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일도 없고, 것처럼 교만하지도 않으며 부서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으며, 한없이 달아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기쁨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  
다!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살찐 송아지!

결코 끝나지 않는 즐거움!

잃었던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기를 바라는  
형이 없다는 것!

## 용서의 확신

**주**님께로 다시 회복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다시 회복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자각과 의심, 그리고 낙담의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실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들 중에서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버리고 자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

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13).

“내게 네 허물을 뺏직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사 44:22).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 55:7).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2) 저는 제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으

로서 저지른 그 무서운 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도 저를 용서하실지 믿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삼하 12:13).

베드로는 주님을 세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요 21:15~23).

하나님의 용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후) 타락한 사람들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 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나갔음이니라”(호 14:4).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어찌 우리를 더욱 용서하실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5:10).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자신이 생각하



는 것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대적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 57:15). 하나님은 교만하여 부서지지 않는 사람은 대적하시지만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시 51:17).

(3) 하나님은 몇번이나 용서하십니까? 저는 어떤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같은 죄를 여러번 저질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한정 용서하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난제(難題)에 대한 해답은 마태복음 18:21,22에서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되 일곱번 뿐만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 곧 무한정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고 서로간에 무한

정으로 용서하라고 가르치신다면 하나님 자신은 우리를 몇번이나 용서하시겠습니까? 대답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처럼 놀라운 은혜는 믿는 자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 (4) 저에게 어려운 문제는 제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용서의 확신이 느낌을 통해서 오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잠시 후에는 예전처럼 죄의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것, 곧 자기 자신의 말씀에 의거하여 용서를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일 1:9).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

기는 용서를 받았다고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용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사람은 자기 느낌에게 속았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 하셨다면 그 사람의 느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타락했다가 회개한 사람은 만유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기가 용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저는 제가 주님을 떠나서 생활할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일단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닙니다. 사실 신약성경에서는 적어도 세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죄들은 불신자(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만 범해집니다.

•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주 예수님의 기적을 마귀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마귀라고 말하는 것과 일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훼방(모독)

하는 죄입니다(마 12:22,23).

•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6:4~6에 언급된 배교의 죄입니다. 이 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었지만 다시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배교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함으로써 짓는 고의적인 죄입니다(히 10:29).

•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서 죽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요 8:24). 이것은 회개함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고 죽는 죄를 말합니다.

참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한가지 차이점은 전자는 일곱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후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시 37:23,24).

“대저 의인은 일곱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잠 24:16).

(6) 저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믿지만 제 자신은 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의 길로 나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렇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태도를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전적인 무익함과 실패를 매우 예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같은 태도가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내가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용서를 다시는 주님을 떠나 방황하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용서를 하나의 사실로써 받아들이고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 타락의 결과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도 그것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와 죄의 결과들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에 관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용서, 즉 사법적인 용서와 부모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주목해 보았습니다.

(1)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 사법적인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이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하여 그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요 3:18). 그분을 믿는 죄인은 자기 죄에 대해 형벌을 치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주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고후 5:21).

(2) 믿는 자가 죄를 범하고 난 후 그 죄를 자백하면 그는 부모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 말은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가족 안에서 교제를 나누도록 그를 회복하신다는 뜻입니다(요일 1:9).

그러나 우리가 필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죄를 지으면 그 결과들이 남는다는 것이며 그 결과들은 때때로 일생동안 남거나 또한 영원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방황하는 동안 하갈과 결혼했으며(창 16:1~16) 그 결과로 태어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 롯은 그의 타락의 결과로 자신의 아내와 사위들,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잃어버렸으며 하마터면

자기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창 19:14~26). 그는 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인한 원수들이었습니다(19:33~38).

• 삼손은 그의 순전(純純)함과 자유, 간증, 시력을 잃었고 마침내 그의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삿 16장).

• 나오미는 남편 및 두 아들과 사별을 해야 했습니다(룻 1:3,5).

• 다윗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는 했지만 우리야를 죽인 죄 때문에 네 배나 갚아야만 했으며 그 결과로 네 명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죽었습니다(삼하 12:19).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삼하 13:28,29). 압살롬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삼하 18:14,15). 아도니야가 브니야에게 살해되었습니다(왕상 2: 24,25).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에게 “같이 네 집에서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삼하 12:10).

다윗은 그의 실패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대하 22:8).



그의 범죄의 결과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훼방(모독)할 거리를 얻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삼하 12:14), 다윗이 것처럼 악하게 행동한 이후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오늘날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훼방(모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타락의 결과들을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이 허비해버린 시간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잃어버릴 상급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좋지 않은 본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부모들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범한 죄가 자기 가정 안에서 되풀이되어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또 그들은 자기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짧은 순간의 죄에 비하여 얼마나 큰 대가입니까!

게다가 허비해버린 기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눈물도 그것들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타락한 자들의 회한(悔恨)을 누가 감히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가장 거룩한 순간에 되살아나는 마음과 심령의 더러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솔하게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성시켜 줍니다. “마음이 패려(悖戾)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 족하겠고”라는 말씀은 여전히 사실입니다(잠 14:14). 그리고 우리는 성경말씀과 경험으로부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갈 6:7).

## 뜻대를 향하여

**우**리가 죄의 결과들에 대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가 회복을 받은 후에 과거의 모든 실패들을 극복하고 성령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회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동일한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1) 그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집안을 철저히 소제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책들을 소각하는 일과 나쁜 습관을 형성하는 물건들을 처리하는 일 등, 악한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없애버리는 일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의류 중에도 정욕에 관계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라”(유 23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악한 욕심을 자극하는 것에 여전히 집착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진실치 못한 회개를 했다거나 혹은 유혹을 거부하는 능력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2) 그가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해 두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기 죄를 계속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 가운데서 경미한 잘못이 발견될 때에라도 그는 그것을 즉시 주님께로 가져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름을 들어 자백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판단해야 합니다(고전 11:31). 이렇게 하려면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죄와 자아(self)를 대항하려는 준비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3) 그 다음에는 주님께 자기 뜻을 온전히 굴복해야 합니다(롬 12:1,2). 이것은 위기 경험(crisis experience)에서 시작되지만 순간 순간의 습관으로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일에는 능력과 안전이 제공되지만 우리가 자기 뜻을 고집할 때에는 위험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4) 그리고 물론 믿는 자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시 119:9,11).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합정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 인도를 받으며, 다가오는 유혹들에 대하여 강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약 1:22). 성경 말씀에 대하여 이와 같이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순복의 태도는 믿는 자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사 66:2).

(5) 기도 역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생명력 넘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빌 4:6,7). 근본적으로 기도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재권(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부르짖음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마 6:13).

(6)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사항은 지역교회의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

하는 것입니다(히 10:25). 그리스도인은 믿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덕 세움을 받으며 강건해집니다(잠 27:17). 그리고 주님의 만찬예배를 통해 구주를 정기적으로 기념하는 것도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아줍니다(고전 11:23~34).

(7) 믿는 자들은 또한 주님의 일에 늘 바빠 있어야 합니다(엡 5:15,16). 유혹은 우리가 게으를 때, 곧 마음은 어정쩡한 상태이고 몸은 지나친 수면을 취할 때 가장 심하게 닥쳐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의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 때에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전 9:10).

(8)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믿는 자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쪽으로부터 의지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 살며, 보물을 땅에 쌓아 두며, 적립금을 불어나게 하며, 재정적인 지주(支柱)들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이에 반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고(딤후 6:8) 그 나머지는 모두 주님의 일에 투자

한 후 장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9) 마지막으로 타락을 피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종신토록 각근(格勤)히” 행해야 합니다(사 38:15).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겸손히 의뢰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잠 3:5,6).

## 하나님께 돌아오라

---

- 발행일 : 1988년 9월 20일 1판1쇄 발행  
1990년 6월 25일 1판3쇄 발행  
1996년 5월 20일 2판1쇄 발행
  - 지은이 : 윌리엄 맥도날드
  - 옮긴이 : 김병희
  - 발행인 : 이치일(E. Ritchie)
  - 발행소 : 전도출판사(등록No.4-41)
  - 연락처 :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 전 화 : (0344) 914-2732
  - 팩 스 : (0344) 917-4520
- 

• 정 가 : 1,100원

---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ISBN : 89-7531-401-4 03230.